

진주바이오산업 육성전략

하 영 래

경상대학교 교수/바이오21센터장

진주는 자원, 인적, 나아가 바이오산업을 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거기에 지난 3년간에 걸쳐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인 바이오21센터를 설립하였고, 벤처기업 집적화를 위하여 센터 인근에 45천평 규모의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는 등 의욕적으로 바이오산업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도시가 되었다.

바이오산업은 대규모의 초기 투자가 선행되고 그 회임기간이 길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반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가(高價)의 장비구축이 절대적인데 진주지역에는 바이오21센터와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연구역량 등 인프라구축이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미 바이오21센터 입주업체 중에서 지난 5월 진주시 해외시장개척단으로 참여하여 1,200만\$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바이오21센터를 축으로 하는 진주시의 바이오산업은 이제 세계로 도약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정부는 9개소의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에 이어 2002년부터 지역진흥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11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전국에 20여개소의 센터를 구축중에 있어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바이오산업이 최적의 산업인양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3~5년 이내에 센터는 5개 이내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센터의 자립화와 성과가 필요하다.

진주시 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인프라, 연구, 지원을 삼위일체로 하는 1단계의 바이오21센터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의 조성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자치단체와 지역대학, 연구소, 바이오 관련 기업 나아가 전 시민이 힘을 모을 때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이오산업의 메카」는 성취되고 나아가 행복한 진주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